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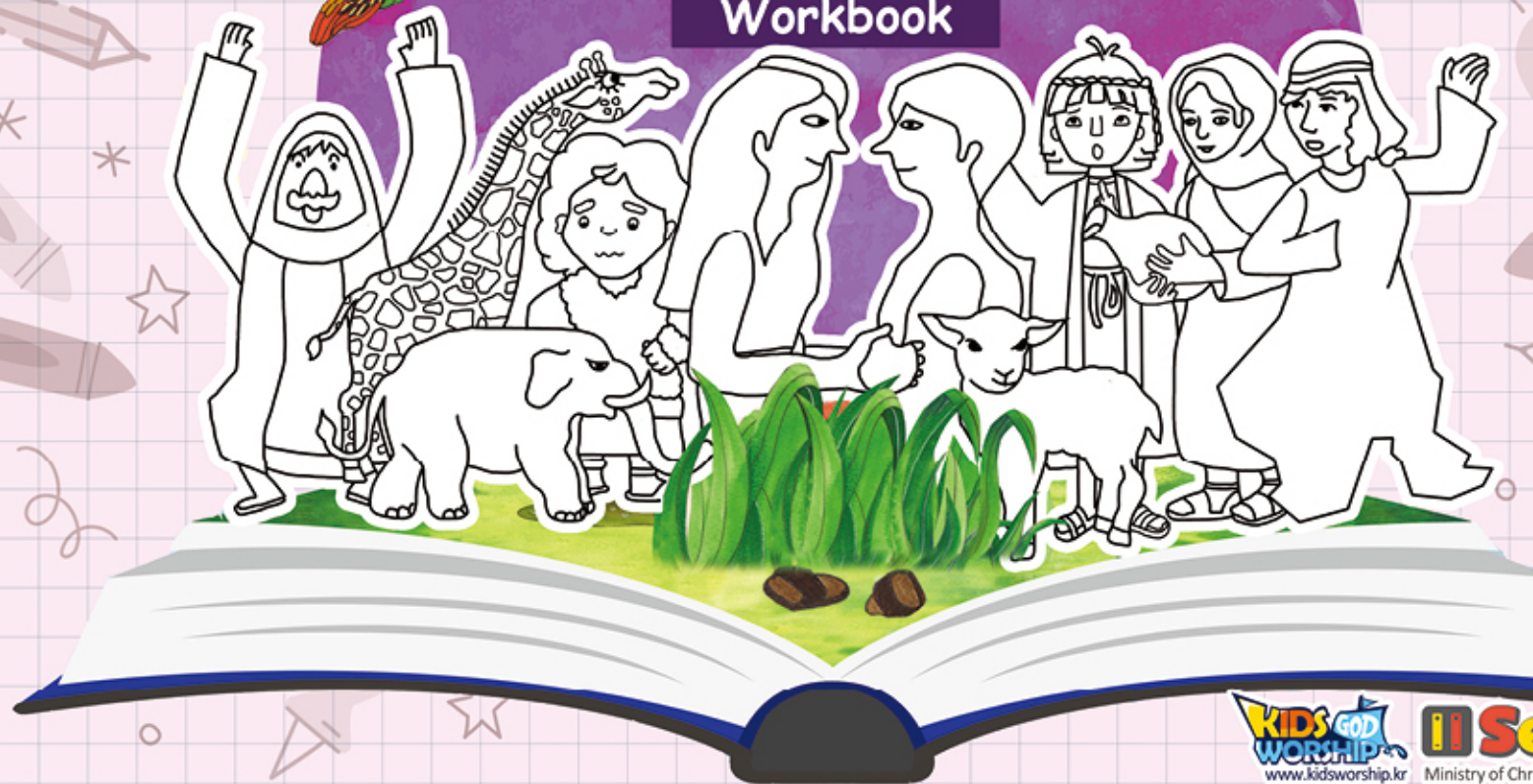


9-11세

그림으로 보는 어린이 성경

Workbook

구약3



그림으로 보는 어린이 성경

Workbook **구약 3**

9-11 Años

편집 |  kidsworship

 Selah
Ministerio de Publicación Cristiano

번역 | Giltea An 그래픽디자인 | Jeewon Park, Julio Blas 교정 | Sori Han

이 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 및 키즈워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례

1. 한나와 사무엘	6
2. 다윗과 골리앗	10
3. 다윗과 요나단	15
4. 솔로몬	20
5. 엘리야	24
6. 나아만 장군	28
7. 왕비 에스더	32
8. 욥	36
9. 다니엘	40
10. 요나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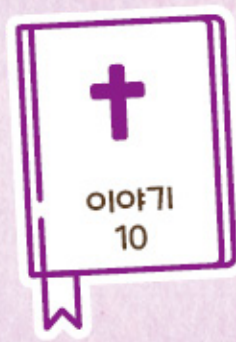
진행상황을 기록해 보세요.



각 성경 이야기의 활동이 끝나고 나면 성경을 색칠해 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이야기 1 : 한나와 사무엘

주제말씀
[사무엘상 1: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는 여러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브닌나는 한나만 보면 화를 내며 못살게 굴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한나는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한나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자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혼을 냈어요.

한나가 제사장에게 말했어요.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위해 축복해 주었어요. 한나는 감사해 하면서 그곳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음식을 먹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한나는 곧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때가 되어 아들을 낳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한나는 아기 사무엘이 젖을 떼 때까지 열심히 사무엘을 사랑하며 길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되자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어요.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어요.

사무엘이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선지자가 된 것을 알았어요.

사무엘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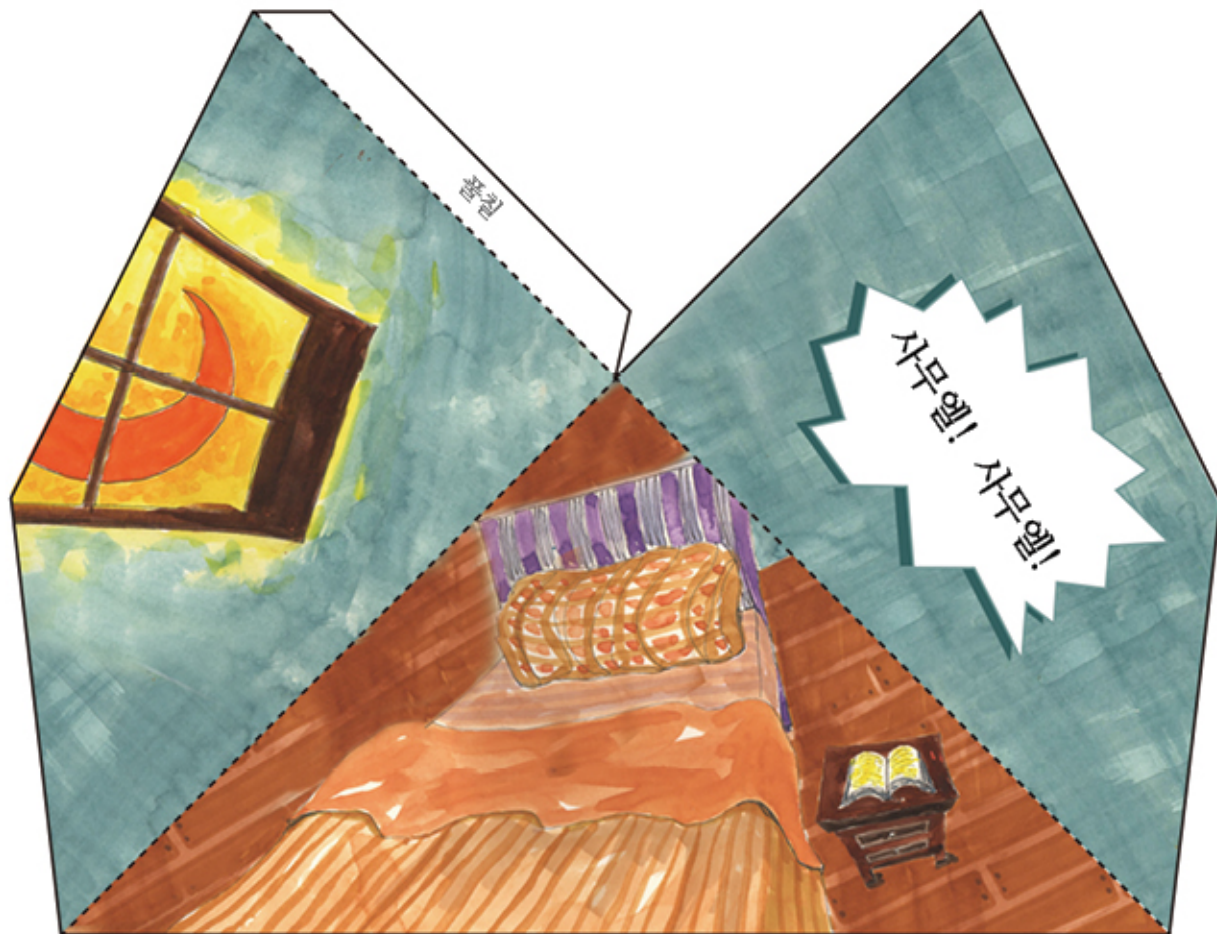




활동 1.

사무엘의 방을 가위로 오려서 방을 완성하고 사무엘의 이미지를 침대에위에 붙여보세요.

준비물 : 가위, 풀.



풀칠

—— 자르는 선
----- 접는 선

완성된 이미지



활동 2.

아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한나는 마음이 힘들 때 어디에서 기도했나요?

2) 한나는 아들을 낳고 무엇이랴 불렀나요?

3) 사무엘상 1장 9-18절을 읽고 대답해 보세요. 한나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했나요?

● 다음 성경구절을 읽고, 암송해 보세요 (사무엘상 1:11)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